

### ■ 한국보험, 세계 6위

한국 보험시장은 세계보험시장에서 수입보험료 기준 2.66%의 점유율로 10여년 내리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손보험회가 발간한 '세계보험시장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보험시장은 '97년 기준 세계보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생명보험 3.47%(6위) 손해보험 1.55%(12위) 등 종합 6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32.3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일본(23.05%), 영국(7.42%), 독일(6.42%), 프랑스(6.06%) 등의 순이다.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생보 929달러(12위), 손보 303달러(24위)로 세계 18위다.

하지만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15.42%로 남아프리카(17.3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 “금융보험통신”(‘99.8.12)

### ■ 청소년 수련시설 내화구조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도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내화구조를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올 하

반기 중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등 5개종의 건물을 지을 때는 석고보드 등 불연재나 난연재 등을 반드시 사용, 내화구조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는 청소년 시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을 수용,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생활관 ▶수련관 ▶야영장 ▶수련원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해 반드시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철골구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나머지 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금융보험통신”(‘99.8.30)

### ■ 우통전자 '화재경보기'

불이 나면 불꽃을 감지해 화재경보를 울려주는 제품이 나왔다.

우통전자(대표 조성수)는 최근 불꽃감지 화재경보기를 개발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연기나 열을 감지해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불꽃에서 나오는 독특한 파장을 인식하는 센서를 이용한 첨단 제품이다. 불꽃을 감지하는 화재경보기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지에서 전량 수입됐다. 국내 업체가 자체 개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수입품에 비해 30% 이상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수도 적어 설치하기가 쉽다.

성능시험을 맡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의 이복영 과장은 “수입품의 불꽃감지 속도가 40~60초인 반면 우통전자의 제품은 1~10초 이내”라고 말했다.

수입품이 공장이나 대규모 시설물에 쓰이는 산업용 제품뿐이었던데 비해 산업용과 일반용을 따로 개발한 것도 특징이다. 이 회사의 산업용 제품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의 국제입찰에서 채택돼 납품됐다. 한솔포럼,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20여개 회사에도 공급했다. 일반용 제품은 학교, 주택, 사무실 등에 적합하도록 보급형으로 개발됐다.

— “한국경제신문”(’99.10.14)

## ■ 새로운 자동차보험 시판 개시

교통사고시 자기신체사고 및 차량손해의 보상 수준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플러스 자동차보험」이 9월 1일부터 시판되었다. 손보업계가 공동 개발하여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 신상품으로써 종전(9월 1일 이전)과 다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플러스보험의 보험료는 보상한도와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존 자동차보험료에 비해 17~20% 정도 인상되었다. ☹

— “금융보험통신”(’99.9.6)

구분	현행 자보	플러스 자보
대인 I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 사망: 최고 6,000만원 · 부상: 최고 1,500만원 · 장해: 최고 6,000만원	〈좌동〉
대인 II	△5천만/1억/2억 3억/무한	〈좌동〉
대물	△5천만/3천만/5천만/1억	〈좌동〉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해 (1인당) · 15백만/3천만/5천만/1억(선택가입)  △부상 · 급별 보상한도내에서 치료실비 · 1급 1,500만 ~ 14급 20만	△사망·후유장해 (1인당) · 1억/2억(선택가입) · 보상한도내에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보상 △부상 · 보상한도/1천만/2천만(선택가입) · 보상한도내에서 치료실비 전액, 위자료, 휴업손해 등 보상
무보험차상해	2억원	〈좌동〉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50만원  〈신설〉  〈신설〉  〈신설〉	△자기부담금: 없음, 5만~50만 △전손시 제반비용 보상 · 보험가입금액의 7%(100만원 한도) △원격지사고 제반비용 보상 · 차량운반실비(20만원 한도) △대체교통비용 보상 · 수리기간 1일당 1/2/3만원